

보도시점 2025. 7. 29.(화) 22:00 (국제엠바고) 배포 2025. 7. 29.(화) 14:00

##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 '25년 세계 3.0%, 한국 0.8% 성장 전망 '26년 세계 3.1%, 한국 1.8% 성장 전망

\* 한국에 대한 평가 근거 [\[별첨\]](#)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7.29일(화) 22시(美 워싱턴 D.C. 현지 시각 9시) 7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통화기금은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초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 대상(우리나라 포함)으로 한 수정 전망

먼저, 국제통화기금은 ①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②高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③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④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하여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한 3.0%로, '26년은 0.1%p 상향한 3.1%로 전망\*하였다.

\* 다만, 이번 전망은 관세인상 유예가 종료(8.1)되더라도 실제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5·'26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p 상향된 1.5%, 1.6%로 수정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25년)1.9%, ('26년)2.0%) 성장률은 관세 인하, 금융여건 완화, OBBBA\* 세법 개편 효과 등으로 '25, '26년 모두 소폭 상향 조정하였다. 유로존(1.0%, 1.2%)의 경우 아일랜드의 의약품 對美 수출 증가에 힘입어 '25년 성장은 소폭 상향하였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 등이 소멸하면서 기존 전망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1.6%, 2.1%)에 대해서는 완화적 금융 여건에도 불구하고 통화 강세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25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하락하고, '26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One Big Beautiful Bill Act('25.7.4)** : 트럼프1기 감세법안 확대 및 영구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삭감/종료, 복지지출 삭감·국방 지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25년 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Delta 0.2\%p$  하향한 0.8%로 전망하였으나, '26년은 0.4%p 높은 1.8%로 대폭 상향하였다.

※ 보고서 본문에는 한국에 대한 구체적 평가 미포함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국)의 '25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4%p 상향한 4.1%, '26년은 0.1%p 상향한 4.0%로 전망하였다. 중국(4.8%, 4.2%)은 '25년은 예상보다 견조한 상반기 실적, 美·中 관세 인하(5.12) 등을 반영하며 상향하였으나, '26년은 조기선적 효과가 희석될 것으로 보아 상향 폭을 다소 축소하였다. 인도(6.4%, 6.4%)는 대외여건 개선 등을 반영해, '25, '26년 모두 전망을 소폭 상향하였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25년 4.2%, '26년 3.6%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전망\* 하면서도 나라별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인다고 예측하였다. '25년 물가상승률의 경우 선진국은 4월 전망을 유지(2.5%)한 반면, 신흥국은  $\Delta 0.1\%p$  하향 조정한 5.4%로 전망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면서 '25년 하반기까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26년에도 2%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유럽의 물가는 유로화 강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글로벌 물가상승률(%): ('24) 5.6 → ('25) 4.2 → ('26) 3.6

↳ (선진국) ('24) 2.6 → ('25) 2.5 → ('26) 2.1 (신흥개도국) ('24) 7.7 → ('25) 5.4 → ('26) 4.5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상정책의 전개 양상이 리스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평가하였다. 하방 요인으로는 실효 관세율 상승, 관세협상 결렬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 투자와 무역투자 흐름을 위축시키며 성장세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지정학적 긴장이 공급망과 물가에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높은 재정적자·국가부채로 인한 시장신뢰 악화, 장기금리 상승 등은 글로벌 금융여건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다만, 무역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노력을 권고하였다. 먼저,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산업정책 설계와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방 등 필수 지출은 유지하되,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다.

< '25.7월 IMF 세계경제전망 중 주요국 성장률 >

(단위 : %, %p)

|         | '24년 | '25년             |                  |              | '26년             |                  |              |
|---------|------|------------------|------------------|--------------|------------------|------------------|--------------|
|         |      | '25.4월<br>전망 (A) | '25.7월<br>전망 (B) | 조정폭<br>(B-A) | '25.4월<br>전망 (C) | '25.7월<br>전망 (D) | 조정폭<br>(D-C) |
| 세 계     | 3.3  | 2.8              | 3.0              | 0.2          | 3.0              | 3.1              | 0.1          |
| 선진국     | 1.8  | 1.4              | 1.5              | 0.1          | 1.5              | 1.6              | 0.1          |
| 미국      | 2.8  | 1.8              | 1.9              | 0.1          | 1.7              | 2.0              | 0.3          |
| 유로존     | 0.9  | 0.8              | 1.0              | 0.2          | 1.2              | 1.2              | 0.0          |
| 독일      | △0.2 | 0.0              | 0.1              | 0.1          | 0.9              | 0.9              | 0.0          |
| 프랑스     | 1.1  | 0.6              | 0.6              | 0.0          | 1.0              | 1.0              | 0.0          |
| 이탈리아    | 0.7  | 0.4              | 0.5              | 0.1          | 0.8              | 0.8              | 0.0          |
| 스페인     | 3.2  | 2.5              | 2.5              | 0.0          | 1.8              | 1.8              | 0.0          |
| 네덜란드    | 1.1  | 1.4              | 1.2              | △0.2         | 1.4              | 1.2              | △0.2         |
| 일본      | 0.2  | 0.6              | 0.7              | 0.1          | 0.6              | 0.5              | △0.1         |
| 영국      | 1.1  | 1.1              | 1.2              | 0.1          | 1.4              | 1.4              | 0.0          |
| 캐나다     | 1.6  | 1.4              | 1.6              | 0.2          | 1.6              | 1.9              | 0.3          |
| 한국      | 2.0  | 1.0              | 0.8              | △0.2         | 1.4              | 1.8              | 0.4          |
| 호주      | 1.0  | 1.6              | 1.8              | 0.2          | 2.1              | 2.2              | 0.1          |
| 기타 선진국* | 2.2  | 1.8              | 1.6              | △0.2         | 2.0              | 2.1              | 0.1          |
| 신흥개도국   | 4.3  | 3.7              | 4.1              | 0.4          | 3.9              | 4.0              | 0.1          |
| 중국      | 5.0  | 4.0              | 4.8              | 0.8          | 4.0              | 4.2              | 0.2          |
| 태국      | 2.5  | 1.8              | 2.0              | 0.2          | 1.6              | 1.7              | 0.1          |
| 인도      | 6.5  | 6.2              | 6.4              | 0.2          | 6.3              | 6.4              | 0.1          |
| 러시아     | 4.3  | 1.5              | 0.9              | △0.6         | 0.9              | 1.0              | 0.1          |
| 브라질     | 3.4  | 2.0              | 2.3              | 0.3          | 2.0              | 2.1              | 0.1          |
| 멕시코     | 1.4  | △0.3             | 0.2              | 0.5          | 1.4              | 1.4              | 0.0          |
| 사우디     | 2.0  | 3.0              | 3.6              | 0.6          | 3.7              | 3.9              | 0.2          |
| 남아공     | 0.5  | 1.0              | 1.0              | 0.0          | 1.3              | 1.3              | 0.0          |
| 나이지리아   | 3.4  | 3.0              | 3.4              | 0.4          | 2.7              | 3.2              | 0.5          |

\* 41개 선진국중 G7 및 유로존 국가 제외

※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MF 홈페이지([www.imf.org](http://www.imf.org))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담당 부서 |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 책임자 | 팀 장 | 배경화 (044-215-4840)     |
|       |             | 담당자 | 사무관 | 권혁률 (bamryul@korea.kr) |



## 별첨

### 한국 경제성장을 전망 수정 관련 평가

\* WEO 본문에는 한국경제 관련 언급이 없으나, IMF 한국 미션단장이 별도로 평가근거를 설명 (7.29(화), 22시 국제엠바고 동일)

- IMF는 7월 WEO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5년 0.8%(4월 전망 대비  $\Delta 0.2\%p$ ), '26년 1.8%(+0.4%p)으로 전망 수정
  - IMF 한국 미션단장(라훌 아난드)은 한국의 '25년 및 '26년 성장 전망 조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 “ '25년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은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반기 실적에 기인”
    - “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경기회복세가 시작되어 '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6년 전망을 1.4 → 1.8%로 상향”
- \* IMF의 '26년 성장률 전망은 한은·KDI·ADB(1.6%) 등 주요 국내외 기관보다 높은 수치
-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기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2분기 중반 이후 개선된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에 바탕”

#### 〈 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근거 원문 〉

*“(IMF’s view) Mr. Anand Rahul, Mission Chief for Korea, explained the revision as follows:*

The downward revision to Korea’s 2025 growth forecast in the July 2025 World Economic Outlook (WEO) update reflects a **weaker-than-expected outturn in the first half of 2025**, due to **elevated domestic political and global trade uncertainties**. However, a **gradual recovery** is projected to begin in the second half of 2025 and continue into 2026, supported by **more accommodative policies—including two fiscal stimulus packages—and improving consumer and business sentiment since mid-Q2 amid easing domestic political uncertainty**. The growth forecast for 2026 has been revised upward from 1.4 percent in the April WEO to 1.8 percent in the July WEO update.